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남의 허물 꾸짖기 전에 자기 잘못 먼저 살펴야

교황, 로마 깜짝 방문 성모상에 헌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고 없이 로마를 방문해 성모 마리아 동상에 헌화하고 인류를 위해 기도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이날 오전 7시께 로마 스페인 광장 인근에 있는 성모상을 찾아 헌화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 속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받쳐 든 모습이였다. 이른 시간이라 사위는 캄캄했고 인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동틀 무렵 비가 오는 가운데 교황이 성모상을 떠받치는 원주 기단에 장미 부케를 놓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로마와 전 세계를 굽어살펴달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전했다.

교황은 약 15분간 홀로 전구를 청한 뒤 인근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으로 발길을 옮겨 미사를 집례했다. 교황의 로마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인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교황은 전통적으로 매년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 시민과 신자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로마 성모상을 찾아 헌화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거행해왔다. 제260대 교황 비오 12세 재위(1939~1958) 때인 1953년 시작된 행사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해 교황이 현장을 찾지 않기로 했다고 교황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교황은 올해 성베드로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탄 전야 미사와 성탄절 미사도 일반 신자 참석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황의 공식 강복 메시지 '우르비 에트 오르비' (Urbi et Orbi - 라틴어로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뜻)도 온라인 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다.

우리 스님네들이 입산해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초발삼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큰자는 형으로 삼고, 작은자는 아우를 삼으라', '높은 소리로 침벨지 마라', '옷깃을 헤치고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간호를 잘 해라', '음식을 먹을 적에 찹찹 음식 씹는 소리, 후루룩 물마시는 소리를 내지 마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기 몸 가운데 잘못됨을 항상 꾸짖고 고쳐 착한 데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만대장경의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열 가지도 넘기 마련입니다. 자기 허물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은 불문에 귀의했을 때 오계(五戒)를 설해줍니다. 오계는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동업중생' 화엄경에 "일체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일체중생의 숙원하는 바를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가히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풍요롭고 따뜻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는 아니하고 욕심 보따리만 안고 있진 않습니까? 마음 그릇을 먼저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락을



가고자 한다면 욕심부터 버려라. 성불을 하고자 하면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달라'는 소리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목숨이 짧은 사람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네 목숨이 길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구원하면 네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복이 없는 자는 복덕 종자를 심어 베풀어라. 베풀면 온다. 결과의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것이다"고 윤리·도덕의 실천을 말씀 하셨을 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모든 것을 나눠 주리라' 처럼 '오너라, 준다'는 요행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만 많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다'라며 지나치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약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신경 써 악한 몇몇 사람을 교화시키면 이 사회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윤리도덕을 제대로 행하

는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발로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낼 것을 확 드러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발로참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 때 집안이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확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을 이는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바른 소리만 하고,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선구자가 돼야 하고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것은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나셨을 테니까요.

-고산 스님-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